

가오리 날아오르다 · 잘 익은 사과 · 공작관문고 자서 (갈래 복합)

(가) 장옥관, 「가오리 날아오르다」— 현대시 (저작권 관계로 구절 인용 최소, 구조 중심 정리)

핵심 상상: 달밤의 경주 남산을 '바다'로, 뒤틀린 소나무 사이 삼층석탑 옥개석을 '날아다니는 가오리'로 전환. 낮의 고요('잡티 하나 없는 고요의 대낮') 속에서 화자는 자신의 바닥으로 가라앉고, 달빛이 차오르면 산 전체가 환상의 바다가 됨.

시상 흐름: 만월 목격 → 시간·공간 감각의 전환(귀 먹먹, 숨 갑갑=바다 밑 신체 반응) → 옥개석의 비상(가오리) → 생명력('팔뚝이 툭, 툭 불거진다').

24번 <보기> 직결: '아득한 기쁨'의 빛은 눌러 있던 가오리(옥개석)가 비상하며 '희디흰 배때기'를 드러낼 때 — 자유로운 생명력에 대한 화자의 환희.

(나) 김혜순, 「잘 익은 사과」— 현대시 (구절 인용 최소)

핵심 상상: 자전거 바퀴 도는 소리('치르르치르르')에서 여치 울음·정미소 나락 빵는 소리를 연상하고, 골목을 도는 자전거의 궤적을 '큰 사과를 깎는 일'로 전환. 마을 전체가 둥글게 깎이는 사과 = 삶의 애환을 감싸안는 상상의 공간.

감각의 연쇄: 청각(바퀴 소리)→후각(아가의 냄새)→촉각(구름이 손등을 덮어줌). 구멍가게 할머니가 사과를 파내 잇몸으로 잡수시는 결말 = 위로의 이미지.

26번 수업활동형: (나)의 창작·감상 상황을 (다)의 이명·코골이 비유와 연결하는 문제 — '작가만 느낀 소리(이명)'와 '남만 아는 것(코골이)'의 구도를 정확히 대응시킬 것.

(다) 박지원, 「공작관문고 자서」— "말이란 거창할 필요가 없으며, 도(道)는 털끝만한 차이로도 나뉘는 법이니, 말로써 도를 표현할 수 있다면 기와 조각이나 돌맹이인들 어찌 버리겠는가."

글쓰기론의 대전제 — 사소한 것에도 도(진실)가 담기니 소재를 가리지 말라.

25번 ① 근거 문장. '기와 조각·돌맹이'를 버리지 않는 독자야 평범한 그림에서도 진실을 본다는 결말과 수미상관.

"한 아이가 뜰에서 놀다가 갑자기 '왜앵'하고 귀가 울리자 '와!'하고 좋아하면서 ... 그 동무가 자기 귀를 기울여 맞대어 보았으나 끝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자, 그만 소리를 지르며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."

이명(耳鳴)의 비유 = 자기만 아는 것. 작가가 홀로 느낀 바를 남(독자)이 알아주지 못하는 안타까움.

짜이 되는 비유 — 코골이 = 자기만 모르는 것(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부정). 창작자의 두 위험을 대칭으로 배치.

"그러므로 이 책을 보는 사람이 기와 조각이나 돌맹이 같은 것이라도 버리지 않는다면, 화공의 평범한 그림에서도 도적의 뺨친 귀밀털을 보듯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."

독자에게 거는 기대 — 사소한 글에서 진실을 읽어내고, 나의 코골이(내가 모르는 결함)를 일깨워 달라는 걸어.

22번 갈래 비교: (다)만 일화(이명·코골이) 삽입으로 논지를 전개 — (가)(나)의 이미지 전환 방식과 대비해 둘 것.

작품 정리

갈래	(가)(나) 현대시 / (다) 고전수필(자서·문학론)
성격	(가) 환상적·감각적 (나) 연상적·위로적 (다) 유추적·설득적
작가	장옥관 / 김혜순 / 박지원
시점/화자	(가) 달밤 남산을 응시하는 화자 (나) 자전거 타는 화자 (다) 문집 서문의 '나'
주제	일상·자연을 상상으로 재구성하는 힘과, 자기만 아는 것·자기만 모르는 것 사이에서의 글쓰기(소통)

특징

- (가) 공간의 전환(남산→바다)과 공감각적 신체 반응으로 환상을 실감화
- (나) 청각 연상의 연쇄로 마을을 '깎이는 사과'라는 상상의 공간으로 전환
- (다) 이명·코골이의 대칭 비유로 작가-독자 소통론을 전개, 일화 삽입식 구성
- 세 작품 공통: 사소한 감각·사물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(24·26번의 <보기> 프레임)